

비구니 위상 높아졌다

태고종-전문 강원 재정지원 늘어

천태종-본말사 주지 임명 검토

총화·원용·일승종 등도 조직 강화

조계종이 2003년 총무원에 비구니 부장을 임명하는 등 비구니 인력 활용과 역할 강화를 기점으로 태고·천태·진각종 등 주요종단의 비구니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태고종이 지난해 말 설립한 울산 보덕사 비구니 전문강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천태종은 비구니스님들에게 본말사 주지직 임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등 각 종단 비구니스님들의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특히 비구니스님들은 사찰의 재정관리와 어린이·청소년, 문화 복지 등의 포교분야에서 주로 활동하며 각 종단의 살림살이와 교세 확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계종 다음으로 큰 규모의 비구니회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는 태고종은 비구(5천명)와 비구니(1천명)의 비율이 약 5대1 정도로 열세에 있다. 하지만 1990년 조직된 비구니회는 16여년에 걸쳐 위상 강화를 위해 세미나와 총회, 복지행사 등을 개최하며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비구니 전문 교육기관인 강원 지원회 위해 전국 비구니회 회원 스님들로부터 기부금을 약정 받아 계속 모금중이다. 또 기부금은 전국 비구니회의 통장을 통해 비구니 강원회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 놓고 있다.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은 주로 비구 스님들과 동등하게 각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태고종이 강세를 보이는 영산재 분야에서도 비구니스님들의 활동폭이 크다. 하지만 종단의 중무 행진에는 활동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높다. 종회의원 53명중 비구니스님은 여초 스님(비구니회 회장) 단 한명뿐이고, 총무원에도 월간 <불교>에서 일하는 지선 스님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사회부장 법현 스님은 “비구와 비구니의 차별이 없으면 비구니스님들이 의지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스님들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종단 비구니스님들의 위상 강화 중 올해 가장 주목되는 곳은 천태종이다. 지난 4월초 천태종 제 14대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취임사에서 “비구니스님들에게 본말사 주지직의 소임을 맡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비구니 스님들의 활동 폭을 크게 넓힐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천태종 비구니스님들은 각 사찰의 살림살이를 주로 맡아오거나 어린이 청소년 포교와 종단 산하의 복지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천태종은 350여곳의 사찰수에 비해 주지직을 맡고 있는 비

구스님은 200여명 밖에 안돼 250여 비구니 스님들을 종무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천태종 비구니스님 중 총무원에서 근무하는 스님은 종무업무를 담당하는 확산 스님이 유일하다. 또한 종회의원도 총 30명(재가불자 50%, 스님 50%)중 3명 정도다.

이에 지난해말부터 우선 비구니 스님들도 1인당 2-3개 사찰씩 지도법사 소임을 맡겨 신도들의 수행 지도를 하는 등 포교 활동 폭을 넓혀주고 있는 상태다.

진각종의 경우, 타종단과 달리 ‘전수’로 불리는 여성 성직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매년 5월이면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는 대전, 충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위문품을 한아름 안고 법당을 찾은 것이다.

이날 수계받은 법사는 모두 1200명. 대전 연화사 종실 스님, 공주 영평사 환성 스님 등 비구니 스님 20여명은 일일이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르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수계법회에 이어 열린 위문공연 시간에는 댄스, 국악 공연 등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장병들을 즐겁게 했고 아이스크림, 과자 등 푸짐한 위문품이 전달됐다.

한해에 13만명이 입소하는 육군 논산훈련소. 그 가운데 30% 정도

김주일 기자

“위문품 많이 보내주세요”



군에 입대해서 처음으로 불교를 만나는 육군훈련소 호국 연무사. 5월 20일 반가운 손님들로 법당에 웃음이 넘쳤다.

매년 5월이면 수계법회를 개최하고 장병들을 위문하고 있는 대전, 충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위문품을 한아름 안고 법당을 찾은 것이다.

이날 수계받은 법사는 모두 1200명. 대전 연화사 종실 스님, 공주 영평사 환성 스님 등 비구니 스님 20여명은 일일이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바르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라는 가르침을 내렸다.

수계법회에 이어 열린 위문공연 시간에는 댄스, 국악 공연 등 풍성한 문화공연으로 장병들을 즐겁게 했고 아이스크림, 과자 등 푸짐한 위문품이 전달됐다.

한해에 13만명이 입소하는 육군 논산훈련소. 그 가운데 30% 정도



대전 충남지역 비구니 스님들이 호국 연무사에서 훈련병 불자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논산훈련소 호국 연무사 “운영 힘들다” 호소 일요법회 3000여명 참가...월 1000여명 수계

그러나 지금은 외부 위문과 참여가 늘어 아이스크림, 과자 등을 주고 있으며 법당에 프로젝터와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신세대에 맞는 법회와 문화공연을 하고 있지만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호국 연무사 박동진 군법사는 “일요법회도 장병들이 너무 많이 동참해 오전에만 두 번 보고 있으며 평균 법회때마다 3천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어 외부 도움이 없이는 법당을 운영할 수 없다”며 “위낙 많은 돈이 필요하다보니 특정 사찰과 자매 결연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매달 수계법회때마다라도 사찰들이 번갈아가며 위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호국 연무사 수계법회는

매달 마지막째주 토요일에 봉행되며 매회 천명이 넘는 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다. 6월 능인선원, 7월 전국비구니회, 8월 서울 소림사에서 위문을 약속했지만 9월부터는 막막하기만 하다. 또한 일요법회를 위문하는 경우가 전혀 없어 대책 마련에 부심한 상황이다.

조계종 군종교구 전장을 총무실장은 “육군 훈련소 법당은 군대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접하는 거사 불교의 발원지이며 향후 군내 종교 비율에 따른 군법사의 선발 등에 영향을 주고 장병들이 전역후에도 사회에서 불교를 종교로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 900548-01-002522 호국 연무사 문의 : 041)741-3734

김두식 기자

상월원각대조사 32주기 열반대제

천태종 구인사서 열려...2만여명 운집

한국 천태종 중장조인 상월원각대조사 제32주기 열반대제가 5월 24일 구인사 대조사전 오마당에서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을 비롯해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사진).

이날 정산 총무원장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낮에는 일하시고 밤이 깊어서야 선정에 드셨던 상월대조

사님의 주경야선 종풍은 오늘의 종단을 금강계단 같은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며 “대조사님의 법신이 영원한 열반대제 자리를 빌려 불자 모두는 근면한 삶으로 회귀해 일일부작일일불식(一日不作一日不食)의 불교적 생활윤리를 실천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



전장 정산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과 김장실 문화관공부 총무실장, 서재관·운원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주호영·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주일 기자

진흥원, 군불교 지원금 4천만원 전달

(재)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5월 11일 조계종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에게 군불교 지원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지원금은 매년 군불교 발전을 위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대한불교진흥원이 지난해에 비해 1,000만원 상향시킨 금액이다.

진흥원 최명준 국장은 “진흥원에서도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



사진 왼쪽부터 송양호 법사, 일면 스님, 홍승희 이사장, 최명준 국장.

만 불자들이 십시일반 경제적 후원을 한다면 더 많은 장병들이 법당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보시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계 후원 석가모니불상(계로:銅) 문의:02-2004-8291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추도록 군포교 활성화 틀을 이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의원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자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만인동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화제의 신간 발간》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사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팍심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사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사가 되는 과정

-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뜨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린다.
-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사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발을 줄 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반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